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0차	일자	2021.07.19.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11

<개회>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인문대와 방구석E스포츠대회 준비 중. 마리몬드와 공동구매 통한 기부 사업 진행 중. 사과대 내 자치단체 아고라 기획 중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사과대와 방구석E스포츠대회 준비 중. 축제 전면 비대면 진행 결정 및 준비 중
자연과학대학	불참
통일공대	특이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불참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2분기 간담회 결과보고 예정 (속기록 중대중심 업로드 완료)
(교육자치) 2학기 수강신청 추첨 이관제 변동사항 카드뉴스 발행
(연대사업) 외부 제휴사업 진행 중
(전략정책) 1학기 정책 이행률 보고 예정
(홍보소통) 푸양 여름 콘텐츠 준비 중

산하위원회
(성평위) 정혈용품 지원사업/ 도서관 사업 온라인 대체 진행

총: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질의 해주시기 바란다.

3 논의안건

1.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 주무부서 논의 보고 (아래 참조)
- 1안. 5%→ 4% → 3%로 단계적 축소
2안. 3%→ 4%로 확대
- 논의 후 표결

총: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이다. 우선 설문조사 내용을 주무부서인 학생지원팀에 전달했고 총학생회장단이 설문조사 내용 토대로 장학제도 개정을 할 때 비율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이 주무부서인 학생지원팀은 전대 총학생회가 이미 하기로 확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는 어렵지만 부분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해주셨다. 이에 1안, 2안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를 했는데 1안과 2안에 대한 중운위 분들의 의견을 여쭙겠다. 우선 1안 5%→ 4% → 3%로 단계적 축소는 우선 2022학년도에는 5%를 적용하고 2023년도에 4%로 하향조정 그리고 2024년도에 3%로 최종적인 하향조정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2안은 내년도부터 적용을 바로 적용하되 3%가 아니라 4%로 하향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다. 1안과 2안에 대한 중운위 분들의 의견 여쭙겠다.

통공.정: 2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는지?

총: 본래의 성적장학금 10%를 3%로 하향조정할 것을 전대 총학생회에서 합의를 했으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3%로 줄이는 것은 너무 급작스러운 변동이고 해서 3%가 아니라 4%로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학생지원팀과 논의가 된 내용이다. 4%로 영구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통공.정: 사실 1안이나 2안이나 축소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1안처럼 5%, 4%,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는지?

총: 저희가 일전에 장학제도 개정관련 의견서를 전달할 때 점진적인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경경.정: 경경대 같은 경우 1안의 단계적 축소는 저희가 요구한 점진적인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최대한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2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 의견 드리면 기존에 성적장학금을 수혜 받는 비율이 전체 학생의 10%였는데 1안과 2안 둘 다 점진적인 축소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10% 대비해서는 굉장히 급격한 축소라고 보여져서 10%, 7%, 5%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이미 전대 총학생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10%, 7%, 5%로 하향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 총학생회장단이 학생지원팀과 논의를 해서 최대한 점진적으로 계산을 하고, 1%p의 비율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1안, 2안을 들고 온 것이다.

통공.정: 2안으로 하면 바로 다음 학기부터 10에서 4로 확정적으로 줄어드는 것인지?

총: 네 차기 년도 1학기부터 적용이다.

통공.정: 공대의견은 1안 2안중에는 2안이 더 나은 것 같고, 1안으로 하면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미래를 보았을 때는 3%니까 그것보다는 4%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공대는 2안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안으로 하면 학생들의 혼란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약학.정: 약학대학도 공대랑 의견 동일하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2안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린다.

예술.정: 1안에서 5%로 하고 굳이 1년마다 1%씩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5%로 하고 조금 더 지켜본다든지 그럴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5,4,3,2,1 이렇게 1년 주기로 가는 게 너무 확정짓는 게 조금 1안에서 수정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총: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미 전대 총학생회에서 3%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향조정 비율은 3%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저도 이 3%로 하향조정 되는 것에 대해서 전대 총학생회에서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점진적이고 1%p라도 따오기 위해서 학생지원팀에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인문.정: 인문대학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때 저희가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중앙사랑 장학금을 수혜 못 받는 학우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장학의 기회도 더 넓혀 달라고 저희가 요구안에 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따로 없는지?

총: 1안이든 2안이든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줄어드는 비율의 장학금은 무조건 학우분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전달받았다. 말씀 해주신 대로 소득분위에 관계없는 장학금 확대의 경우에는 중운위내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TF 구성을 한다든지 충분히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달받은 바 있다.

부총: 덧붙이자면, 어쨌든 방금 총학생회장님이 설명을 하신대로 총학생회장단이 주무부서와 개정안 전달 이후에 여러 협의를 거쳤고 지금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가져 왔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어쨌든 9,10분위 보완책이나 다른 장학제도 마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결정 후에 나머지 비용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논의에서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빠르게 해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총: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학 추가 의견 없다.

간호.정: 논의 후 표결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인지?

총: 네, 중운위분들의 의결을 통해서 주무부서에게 대표자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간호.정: 추가의견 없으면 바로 투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총: 마지막으로 여쭙보고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사과.정: 사과대 합의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장학제도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인데, 현재 주어진 1안과 2안은 설문조사 결과와 조금 무관하게 많이 축소가 된 성적장학금의 비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총학생회장단이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전대 총학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급격하게 바꾸긴 어렵겠지만 저희가 장학제도 설문조사를 했던 항목을 보면 성적장학금이 축소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축소되면 좋겠냐는 항목에 저희가 제시한 게 현행유지 10%, 그 다음에 축소안은 7%, 5% 이렇게 7%와 5% 두 가지 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3%라는 비율은 좀 급격하게 축소된 비율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총학생회장단과 주무부서의 의견의 합의점으로 4%정도로 합의를 봤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3%나 4%나 1%밖에 차이 안 나는 비율은 주무부서가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혹시 5%정도로 협의를 볼 수 없는 것일지 다시 한 번 여쭙보고 싶다. 사실 현재는 그리고 저희가 장학제도 관련해서 주무부서에 드린 중앙운영위원회 의견서에 있는 소득분위와 관계없는 장학금에 대한 마련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소득분위와 관계없는 장학금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4%로 축소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닐까 하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

총: 우선 10%, 7%, 5%의 항목은 설문조사 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도 처음에는 5%로 주장을 했으나 1%p가 약 10억 정도라 한다. 10억을, 학교 측에서도 1%p를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함이라고 말씀해주셨고 10억 정도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소득분위와 관계없는 장학금에 대한 대책은 아까 부총님께서 말씀 해주신 바와 같이 이 비율이 합의가 된다면 차후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주무부서의 답변을 받았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바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표결명은 제가 채팅을 통해서 올리드리도록 하겠다. 1안, 2안, 기권이 의결 의사표현 항목이고 첫 번째로 '장학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1안을 채택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동의 의사를 채팅창을 통해서 표현해주시길 바란다. '장학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2안을 채택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의사표현을 해주시길 바란다.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기권이라고 의사표현 해주시길 바란다. 참석단위 11단위, 1안은 0단위, 2안은 9단위, 기권 2단위로 2안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대표자분들이 우려해주시 대로 나머지 비율에 관련하여 협의는 내일 중으로 주무부서 전달하고 또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2. 학사정기협의체 2차 회의 진행 논의

- 2학기 학사운영방식 관련 요구

총: 일전에 공지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학사정기협의체 2차 회의가 소집이 된다. 이번 학사정기협의체는 2학기 학사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지금 제가 공지방에 얼마 전에 올라온 총장 서신을 올려 드렸다. 참고하고 논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다음 주 화요일인 7/27에 2학기 8주차까지의 학사운영방식이 결정된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 할 것이고 우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7/25 이후에 내려오는 정부 지침을 고려해야겠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고 있고 정부에서도 4단계로 지령이 내려오는 만큼 2021학년도 2학기 8주차까지 학사운영방식은 4단계를 채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4단계는 함은 전면 비대면을 의미한다. 또한 8주차 이후에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을 할 때에는 최소 4주전에는 학생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하고 8주차 이후에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이번 학사정기 협의체를 통해 요구를 하려고 했었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고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총장님 서신을 확인했고 총학생회장님이 방금 8주차까지 먼저 다음 주 주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8주차 최소 4주 전에 이후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인문대는 일단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8주차 이렇게 끊어서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학우분들께 효용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 4주 전에 미리 공지를 해도 사실 학우분들의 거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문대학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학기 전제로 학사운영 방식을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하다. 그리고 총장님의 서신을 보면 2단계부터 30명 내외의 신청 과목은 대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문대학은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 반대의 입장이고 저희는 이론 수업에 한해서 비대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그 다음에 두가지로 질문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학교 측에서 방역 매뉴얼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예정인지 일단 궁금하고 이 방역 매뉴얼이라 함은 이제 코로나 감염 위험군이 학교 등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진자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역 매뉴얼을 구축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역소 증설과 같은 검역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명 미만으로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이걸 과연 대형 강의실에서 이뤄지는지 아니면 소규모 강의실에서 이뤄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학교 측에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총: 우선 학교본부가 8주차를 기점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매뉴얼 검역소 문제 구축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다. 또한 소규모 수업은 소규모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강의실에 진행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인문.정: 근데 그러면 인문대학은 또 질문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총장 서신을 통해 학사운영 원칙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게 전체 학우들의 이메일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학사운영 원칙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열리는 학사정기협의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무언가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쭙보고 싶다. 사실 지금 총장님이 발표하신 학사운영 원칙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단 하나도 수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중운위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전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무위원회가 다 결정했을 때 다음 주 학사정기협의체에서 무언가를 명확히 요구했을 때 그것이 정확히 반영이 되는지 여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저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총: 제가 본부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 원칙은 정부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확정된 것으로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말씀 해주신 대로 이 원칙이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 또한 예상하고 있다.

인문.정: 그럼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데 사실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논의해야할지 사실은 인문대학은 의문이고 그럼 저희가 무엇을 요구해야할지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논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

총: 우선 이 확정된 원칙에 대해서 논하자고 제가 안건을 상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코로나 확산 추이를 고려해서 2학기 8주차까지 학사운영 방식, 그러니까 몇 단계에 맞춰서 요구할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안건으로 상정했고 또한 8주차 이후에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저희 학생대표자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나 여러 가지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부총: 지금 인문대 회장님께서 주셨던 의견도 그 수립된 원칙 위에서 원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논의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총학생회장님이 어떠한 단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 단계 같은 것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계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운영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봤자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사실 의문이고 그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도 학교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합하지 않은 의견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거에 대해 항의하고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중앙운영위원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뒤집을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솔직히 정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오고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이 운영원칙도 세워질 건데 사실 저희가 더 논의할 것은 이 원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논의 하는 것 외에는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인가 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 보다 학교에 방역 매뉴얼이라든지 이러한 30명 미만의 대면이 이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 본부에 물어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뭘가 현실적인 추이가 아닐까 싶다.

총: 뭐 원칙이 결정이 된 데에는 본부와 정부의 그런 게 있었겠다. 제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말씀 해주신 대로 매뉴얼 구축 문제라든지, 검역소 문제라든지 방역 관련 된 문제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학교 본부의 답을 듣는 것도 학사정기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폭넓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인문대 회장님?

인문.정: 현 시점에서는 학교 측에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제기 같은 것을 중운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토의라고 생각한다.

총: 단계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학사운영 방식이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원칙인 것이지 한달남은 기간에서 결정을 할 때에는 본부에서도 충분히 9월 달에 추이를 예상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4단계를 요구르 할꺼면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었던 것이고 분명히 본부는 백신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3단계를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대표자들의 의견을 여쭙었던 것이고 말씀 해주신 대로 방역문제 등과 같은 것들에서도 이번 안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매뉴얼 구축과 방역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단계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 하시고 싶은 대표자분들은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는 아까 인문대에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 구축에 대해서 일단 그 자리에서 하나씩 짚어서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구축이 안 되었다면 어느 시점까지 그 매뉴얼 구축을 완료할 것인지와 어느 시점에 세부적인 매뉴얼을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정: 방역 매뉴얼 학교에서 좀 구체적으로 받고 그거 바탕으로 논의 해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예술대학이 좀 특성상 실험, 실기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3단계에서도 일부 대면을 하게 해준다고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좀 저희 예술대가 그런 수업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다. 4단계에서도 4단계 아무리 전면 원격이 돼도 사실 이 실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학생들끼리 모이는 상황도 있는데 그때에도 학과나 학부 차원에서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매뉴얼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계속 수업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공연

을 올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연습실에 자주 연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학과에서 뭐 정말 기본적인 매뉴얼 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와라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되게 무방비 상태에서 저희 예대가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그렇게 방역 매뉴얼을 구축을 할 때 이부분도 조금 의견을 전달 해주셨으면 좋겠다.

총: 네 예술대학 등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다.

예술.정: 그러니까 수업 매뉴얼 + 수업 외에 학생들이 모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좀 매뉴얼이 잡혀있어야지 좋을 것 같다.

통공.정: 공대 의견 있다. 일단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4주전에 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 측에서 괜한 예측 같은 걸 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4주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냥 딱 그때 상황을 보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상황이 나아져도 그냥 괜히 바꾸지 말고 내린 대로 꼭 진행을 하는 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결정을 내렸는데 더 심해지면 번복은 가능하지만 완화된다고 해서 다시 대면을 확대 한다 이런 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서 예측한대로 다 되는것도 아니니까 예측하지 않고 그냥 4주전 시점을 기준으로 8주씩 끊어서 학사일정을 말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지금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역소가 저는 사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거 그냥 문진표도 아니요 누르면 아는 것도 없고 바코드만 찍는데 거기에 무슨 손세정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좀 놔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인 게 그 차량이 들어올 때 운전자만 체온을 잰다. 그거 탄사람 다 체온을 재는 게 맞는 것 아닌지? 그 부분도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부총: 방금 의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체온계는 구축이 되어있는 것 같다. 안에 있는 카메라가 체온계인 것 같고 다만 그 차량의 동승자도 체온 체크를 해야한다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다만 이게 외부 용역이나 학생들이 진행요원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동승자에게 모두 요청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하든지 안내를 좀 외부인에게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다.

통공.정: 그 카메라가 체온계인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 화면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 이상이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내겠다. 경경대는 우선 단운위랑 이야기했을 때 개강 이전에 학사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 이것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최소 4주전에 공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전면 비대면이 아닌 학사 운영 시에는 출입자 매뉴얼 구축을 정확히 하고 방역시스템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는 대면 수업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지금 나와 있는 매뉴얼이 방역 시스템을 고려하고 구축한 매뉴얼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간호.정: 간호대도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과 매뉴얼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대학장 승인 하에 대면수업이 가능한 3단계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총: 8주차까지 수업을 3단계를 적용하자는 것이 간호대 회장님의 의견이신지?

간호.정: 네

부총: 혹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물어봐도 되는지?

간호.정: 우선 저희 간호대의 경우에는 저번 학기에 현 3단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나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일괄적으로 받고 월요일에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치러졌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지금 또 제출을 받고 있어서 그런 매뉴얼과 방역 대책이 제대로 마련만 된다면 저희 단위의 경우에는 실험, 실습이 꽤나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대학장의 승인 하에서 대면이 이뤄질 수만 있다면 3단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25일에 발표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학사운영 방식이 정해질 것 같은데 수요일에 있을 학사정기협의체가 25일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실험, 실습이 아까 예대 회장님께서도 말씀 해주

신 것처럼 중요한 단위에게는 대학장의 승인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한다.

사범:정: 사범대 의견 내겠다. 사범대 또한 완전한 방역 구축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예술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실기과목, 그리고 체육관, 실습실 등 다양한 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이 되게 많은 과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시설 폐쇄가 됐을 때, 체육관이나 실습실 이런 폐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래서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폐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지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다.

총: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대로 현실적인 논의는 곧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단과대에서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실험, 실습, 실기 단위에 대해서는 적절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다른 단위도 3단계 적용에 대해서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대 회장님께 여쭙는다. 예를 들겠다. 학교 본부는 4단계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있다 무조건. 근데 저희는 안 된다 3단계 해야 된다 왜냐면 간호대나 예술대학이나 사범대학이나 실험, 실습, 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장의 승인 하에서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게 간호대 회장님의 의견이신지 아니면 학교 본부가 저희에게 3단계를 채택할까, 4단계를 채택할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그럼 3단계를 하자 이런 입장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되겠다.

간호:정: 우선 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후자라면 당연히 3단계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실험, 실습이 중요한 단위가 꽤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자라면 3단계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총: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3단계를 채택했을 때는 대학장의 승인에 따라서 실험, 실습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험, 실습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학장이 수업을 승인하는지에 대한 알고계신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단과대별로 결정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실험, 실습이 있는 단과대에서 일괄적으로 실험, 실습 강의에 대한 개설 요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간호:정: 두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3단계를 적용해서 대학장 승인에 따라 단위별로 실험, 실습 운영을 판단하게 되면 지금 실험, 실습수업에 대해서는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면수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3단계를 적용한다고 하면 해당 단위 학생회에서 그 실험, 실습의 대면수업 진행에 대한 요구를 또 따로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왜냐하면 대학장 승인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장 자의적으로 어떤 수업은 열고, 열지 않는 것으로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정리를 하자면 실험, 실습수업에 대해서 단위별로 협의 할 계획이 있으셔서 3단계 적용을 요구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간호:정: 단위별로 협의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희 간호대학 학생회 내에서 협의를 한 후에 저희 간호대학에 요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신 건지?

부총: 제가 질문을 계속 애매하게 드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다시 여쭙보겠다. 그럼 대학장 승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다.

간호:정: 그 부분은 제가 대학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는 것 같다. 저는 다만 저희 단위가 저번 학기에 3단계처럼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고 그 하에서 잘 이뤄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3단계가 적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다다.

총: 간호대는 충분히 매뉴얼이 구축이 돼있으니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간호대 입장인 것 같고 만약에 3단계 적용할 때 대학장의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학생회와 대학장 간에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건 특정상 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통일된 안을 내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총님께서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여쭙본 것 같은데 맞는지?

부총: 맞고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일단 실험, 실습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간호대나 사범대 같은 경우는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대학장 승인에 맡겨도 결정이나 상호 논의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공과대학이라든지 대규모 단위 같은 경우는 실험, 실습수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뭘 하고 안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게 마련이 되어야 3단계가 실시가 돼도 학생들의 혼란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다. 단순히 실험, 실습 수업의 가능성만 보고 3단계를 요구하기에는 결정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여쭙봤다.

간호.정: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방역과 매뉴얼 대책과 관련해서 똑바른 구축과 발전과 함께 3단계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저희 단위 같은 경우에도 3,4학년의 숫자가 그렇게 적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총: 간호대 분들이 실기 나가기 전에 백신을 맞으니 그 백신을 맞는 등과 같이 적절한 매뉴얼이 구축이 된다면 3단계 적용을 해도 괜찮겠더라는 것이 간호대 회장의 의견이다. 맞는지?

간호.정: 네 맞다.

총: 네 그러니까 방역 매뉴얼만 있으면 3단계를 적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간호대 회장의 의견인 것 같고 이에 대한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전제가 방역 문제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된 매뉴얼이 온전히 구축이 됐다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3단계 대학장 승인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장 승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실험, 실습에 대한 수업 보장은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험, 실습수업 보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학장 승인은 저희 경경대에서는 너무 모호한 말이라 차라리 4단계를 요청을 하고 실험, 실습에 대한 수업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총: 그럼 4단계를 적용을 하되 실험, 실습에 대한 수업을 보장해라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경경.정: 지금 이 3단계 자체에 대면에 대학장 승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쳐질 수 없다면 대부분의 수업을 원격으로 가나 실험,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대면으로 가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3단계에서 대학장 승인의 기준을 실험, 실습으로 마련을 한다면 3단계로 가고 해당 내용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부총: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단계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실험, 실습수업 운영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그 단계 설정이 1일 소집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마련을 하는 것인데 교내 실험, 실습수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분반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인원 분리를 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방역 기준마련이 힘들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4단계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더 구체적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는 가정 하에서 3단계 요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제가 인문대학 몇 가지 한번만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논의된 게 총학생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방역 매뉴얼 완전히 구축된 상태를 가정하고 논의 하자는 게 저희의 대전제였고 지금 많은 대표자분들이 얘기해주신 게 4단계라는 정부지침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학장의 승인 하에 실험, 실습 과목에 한해서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건 어떠냐라는 게 지금 대부분 대표자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총: 마지막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는지?

인문.정: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방역 매뉴얼이 구축되었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아까 총학생회장님이 말씀 해주신 것처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간호대 회장님처럼 여러 분들이 아 죄송하다 간호대를 집은 건 아닌데 제가 기억하는 게 간호대라서 얘기 해주신 게 지금 정부 지침이 만약에 4단계였을 때 그 4단계 상황 속에서 실험, 실습 과목에 한해서는 대학장 승인 하에 3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방향으로 논의된

게 아닌지?

총: 네 맞다.

인문.정: 그럼 대부분의 단위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문대학은 솔직히 이론수업이 전부이기 때문에 3단계나 4단계나 상관이 없이 원격수업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실험, 실습 과목이 많은 단과대학의 의견을 저희는 전부 따르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도 동일한 의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회과학대학 또한 3단계나 4단계가 큰 상관이 없고 사실 3단계도 4단계도 괜찮고 저희도 실험, 실습이 많은 단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고 저희는 방역대책도 중요한데 확진자 판정 이후에 대응 매뉴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처럼 전부 대면으로 전환 되었을 때 아니면 부분 대면수업 진행될 때 대면이나 혹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서 수업 참여가 어렵게 된다면 대체수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다.

간호.정: 간호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과목의 경우에는 3단계, 4단계 둘 다 원격이기 때문에 실험, 실습, 실기 단위만 이제 대학장의 승인 시에 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3단계에서의 대면 대학장의 승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대학장의 승인이 저희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대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그 지침에서 벗어나면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면 3단계를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저희 단위의 경우에는 교내 실습이 이뤄질 때는 따로 실습복을 입지 않고 페이스 실드와 함께 옷을 따로 갖춰 입고 장갑을 끼고 여러 조로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다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다함께 취하면 3단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총: 그러니까 인문대, 사과대 회장님의 의견은 사실 3단계를 적용하든 4단계를 적용하든 이론수업은 전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이 없는 단위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 수업이 많은 단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간호대 회장님의 의견은 옳은 말씀이시다 하지만 대학장의 승인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3단계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간호대 회장님의 의견이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지?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우선 원칙을 수립할 때 매뉴얼을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안 되어있다고 하면 검역소 문제 등이 포함된 방역 문제와 관련한 매뉴얼 구축에 대해서 요구를 하자. 그리고 구축의 기한도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자인 총학생회장단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예술대학은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이 많은 경우 수업 외에 수업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8주차 이후에 학사운영방식은 최소 4주전에 공지를 해주되 번복이 되지 않는 확실한 결정 사항을 공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를 적용 해달라 라는 것이 저희 중운위 대표자분들의 의견이고 제가 빼먹은게 있는지? 네 없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부총: 죄송한데 지금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떤 단계를 제시하는 것 보다는 이론 수업 전면 비대면 하고 실험, 실습에 대해서 그냥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든다. 왜냐하면 저희가 3단계를 제시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논의한 내용과 다르게 그냥 실험, 실습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되는 식으로 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개별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에 맞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인문.정: 근데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3단계를 요구 하자는 게 아니라 4단계 상황 속에서 대학장의 승인 하에 3단계라는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대학장님이 알아서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부총학생회장님의 새로운 이야기도 어쨌든 저희가 결정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총학생회장님이 정리 해주신 걸로 딱 정한 다음에 넘기는 게 더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어차피 부총학생회장님이 주신 의견도 똑같은거기 때문에 크게 더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다.

총: 부총님께서서는 그 3단계라는 워딩 자체를 쓰는 것이 적절치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런 걸 말씀 해주신 건지?

부총: 네

총: 잘 판단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3. 새내기새로배움터 예산 활용 논의

- 주무부서 의견 보고

총: 논의안건 3번이다. 새내기새로배움터 예산 활용 논의이다. 우선 제가 새터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다. 크게 두 가지를 질의 드렸다. 예산팀장님께. 첫 번째로 숙박형태의 새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중운위 차원에서 다른 행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새터 예산이 보존이 되어있는 상황이나 라고 여쭙봤더니 새터 예산은 끝까지 보존할 것이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건은 되지만 집행의 정도는 각각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잘 감안해서 대표자들하고 주무부서인 학생지원팀하고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한나라는 것이 예산팀의 답변이었고, 두 번째로 작년의 새터 비용을 전용할 때 예산팀으로부터 통일된 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예산팀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도 같은 입장이냐 라고 여쭙보니 사실 단과대학 별로 행사를 다르게 하면 단과대학별 학생 간 서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과정이야 투명하든 잘 진행은 했을지언정 만약 새터 대체 행사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단과대학 학생들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답변해주셨다. 기념품 제공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예산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 이것이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 답변을 토대로 우리 중운위 대표자분들의 의견 개진을 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단위 내에서 나온 질문이 있는데, 예산이 보존이 된다면 내년까지도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쭙 보고 싶다.

총: 그것은 잘 모르겠다. 아마 이 새터의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지 않는 한 보존이 되지 않을까? 올 초와 동일하게 내년도에 대면 숙박 행사 새터가 진행된다면 21학번의 새터 예산은 충분히 보존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은 있다. 근데 제가 예산 팀장님이 아니라서 그 의중은 자세하게 모르겠다.

간호.정: 그러니까 단위별로 사업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총: 같다고는 표현 안 해주셨고, 어느 정도 통일이 되었으면 한나라는 것이 예산팀의 입장이었다.

부총: 공동으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데 똑같은 분야로,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간호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총: 그런 것 같다. 예산팀은 돈을 주던 안 주던 상관없는데, 만약 어느 단과대학은 6만원을 주고 어느 단과대학은 4만원을 줬을 때 퀄리티에 따라서 단과대 학생들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본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똑같이 6만원을 줬는데 통일된 행사를 진행해서 같은 여론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것이지 어느 단과대에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대표자분들의 입장과 의견과 능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지만은 일단 예산을 지급하는 본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다.

간호.정: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각 단과대학 집행국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

총: 집행국장이요?

간호.정: 그러니까 단위별로 사업을 할 위원들이 모여서 다 같이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2학기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든다.

총: 물론 실무진분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실무진 의견을 수합해서 대표자분들이 중운위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새터 대체 행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안건으

로 상정하려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생각 정립이 안 되었다는 것인지?

간호.정: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각 단위가 통일이 될 수 있을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번에 기타안건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각자 계획된 게 있어 가지고 새터 대체 행사를 한다 안 한다가 각 단위별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총: 네, 알겠다. 혹시 새터 대체 행사 관련해서 단운위나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된 단위가 있을지?

경경.정: 경경대 같은 경우 새터 관련해서는 이미 1학기 때 각 단위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새터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축제 비용으로 해서 기획안을 제출한 다음 받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범.정: 사범대도 경경대 회장님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총: 네 일단 알겠다. 다른 단위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단위 별 의견을 여쭙봤을 때는 일단은 올해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그 방식이 축제는 저희 단위는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명목상 새내기 예산이고 축제는 1, 2, 3, 4학년 전 학우가 모두 즐길 수 있고 수혜 대상 자체가 1, 2, 3, 4학년 전부이기 때문에 축제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 단위에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대면 숙박이 아닌 기념품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내년까지 예산보존을 해서 만약 내년에 새내기새로배움터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는 의견도 존재했다. 인문대학 의견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축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축제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 단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약학.정: 약학대학 질의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기념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기념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총: 저는 잘 모르겠다. 모든 물품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 사실 기념품이라는 것이 말을 갖다 붙이면 기념품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든지 간에 상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이다.

통공.정: 공대도 받게 된다면 이제 새터 대체행사보다는 공대 축제에 사용을 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저것을 받느냐 마냐에 따라서 기획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혹시 언제쯤 확정이 나는지 알 수 있는지?

총: 다시 말씀 해주시겠는지?

통공.정: 저 금액을 받게 되냐 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 같아서 혹시 받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확답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쭙보았다.

총: 일단 예산 집행은 언제나 가능하고 통일된 안을 언제 가져 가냐에 따라서 지금 시기는 상이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통공.정: 비대면 시국에 모든 것이 처음인데 통일된 안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곰곰히 생각했을 때 다른 단과대마다 기존에 하던 축제가 있을 것이고 기획하는 것이 다 다를 텐데 아까 인문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돈을 받는다면 저 돈은 어떠한 상품, 기념품 같은 곳에만 써서 그 정도만 통일할 수 있지, 저것으로 어떤 행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다 다를 것 같다. 차라리 그 정도만 협의를 거치고 통일시켜서 가져가는 것은 혹시 타 단과 대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 저도 상세안은 당연히 단과대학 별로 상이할 것이라 생각하고, 큰 틀 정도는 통일이 되었으면 한나라는 것은 제 의견은 아니고 본부의 입장이다.

통공.정: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매년 행사나 학교 축제도 그렇지만 항상 반팔 티를 줬었다. 학교 축제를 할 때도 항상 반팔 티를 제공했었고 저희 공대 축제 때도 항상 반팔 티를 했었는데 그래서 반팔티라든지 이런 기념품의 종류라든지 금액대 정도를 단위별로 그 정도만 통일시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다. 너무 중구난방이면 좀 그럴 거 같아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다.

간호.정: 간호대는 우선 새터 라는 것 자체가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물론 새터를 진행할 때 그 지원금이 적용되는 학년이 1학년 말고도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1학년을 주로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기념품으로 한다가

보다 차라리 보존될 수 있다면 동결을 시켜놓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때 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단위 안에서는 새터 대체 행사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를 했어서 그렇다.

통공.정: 저는 보존에 반대인 게 보존을 하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휴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보존한다 해서 내년 새터를 만약 간다면 22학번, 21학번이 같이 가게 된다면 21학번이 가는 인원수가 저는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뭐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년 새터도 확정이 아니고 못 갈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남겨만 놓으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남겨두면 또 못 받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올해 어떻게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약학.정: 저희 약대도 통일공대처럼, 통일공대에서 반발 티를 나눠줬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최대한 다 쓰고 싶어서 신입생 대상으로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돗바를 그냥 배부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기념품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고 질의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통일공대와 저랑 의견이 같은 게 저도 예산을 보존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20학번 새터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이 보존이 안 되고 사실상 등록금 환불에 전부 다 지출이 된 상황이다.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그냥 쓸 수 있을 때 빠르게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총: 대표자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동결이라 함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대면 숙박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때 보존해달라는 것인지?

통공.정: 공대의견은 내년에 숙박행사가 가능해도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받아서 올해 쓰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휴학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군대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보존을 해도 참여율이 기존에 진행하던 것들 보단 당연히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차라리 올해 받아서 쓰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했다.

총: 의견내주신 간호대 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내년에 비대면일 경우에도 무조건 동결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대면 숙박 행사가 진행 가능할 때만 동결해달라는 것인지?

간호.정: 비대면 대면보다는 새터 라는 것 자체가 대면으로 숙박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동결을 푸는 게 맞다라고 한다만, 지금 전 단위가 통일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기념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동결을 시켜놓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드린 것이다.

경경.정: 경경대 질의 있다. 사용 방법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 있는지?

총: 그렇지 않을지? 만약 통일되지 않는다면 본부는 아마 보존시켜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어디까지나 본부의 생각이고 일단 알겠다. 대표자분들의 의견은 알겠고, 다시 한 번 예산팀 찾아가서 질의하도록 하겠다. 새터 예산 저도 그만하고 싶다. 물어보고 제가 질답 결과에 대해서는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과대 아까 의견을 못 드려서, 아까 통일공대 의견을 끊어서 제가 데이터 연결이 불안정해서 죄송하다. 예산팀과 이야기하실 때 사과대 생각에는 사실 같은 새터라고 해도 단위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에 따라서 학우분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서 통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단위에 대한 평가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단과대는 이미 축제를 진행을 했고 어떤 단과대는 축제를 진행 안 해서 2학기에 할 예정이라는 등 아니면 어떤 단위는 이미 학과/부 별로 과잠이나 돗바 예정이 있고, 어떤 단위는 예정이 없어 단과대에서 맞출 수 있다는 것처럼 이미 2학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1학기에 시행한 사업이 다 달라서 통일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예산팀에 가서 말씀 나누실 때 이런 근거들도 같이 활용해서 통일이 어렵고 단위별로 2학기 행사 진행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피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상이다.

총: 알겠다. 예산팀 방문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정정보 결의안 관련해서 총장실 향의 방문하기로 했는데, 제가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이번 주 수요일에 가야할 것 같은데 혹시 대표자분들 괜찮으신지? 방문 주체는 저랑 부총이 되겠지만 시기에 대해서 동의해주시면 이번 주 수요일에 향의 방문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감사하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방금 등록금 환불 관련 자체 조사 공문 보내드린 것 중에 방금 자료를 받은 게 있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엑셀파일은 코로나19 검역소 출입인원 현황이고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별로 출입인원을 산출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으나 개인정보법상 2개월 치 밖에 보관이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아서 검역소 출입인원에 대해서 재요청해서 받은 자료이다. 지금 보내드리는 것은 2021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안내 자료이고 지금 보내 드리는 것은 불임자료이다. 지금 확인을 하고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일전에 보내드린 자료들과 아직 예상 팀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논의하고자 이번 주 내에 임시회의 소집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

통공.정: 네 좋다.

인문.정: 네 동의한다.

예술.정: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임시회의 소집 관련해서는 투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1. 중운위 회의록 관련 안내

화요일 3시까지 회의 요약본 제공. 속기록은 목요일 3시 업로드 해 검토 진행.

총: 기타안건에 대해서는 부총님께서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부총: 회의지에 써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고 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기간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데 일정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부총: 안건 마치겠다.

총: 기타 안건 두 번째이다. 현재 중감위원장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한 명 지원을 해주셨고 경영학부 21학번 학우분께서 지원을 해주셨다. 24일 오후 6시까지 지원을 받고 지원서는 중운위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통공.정: 21인지?

총: 네 맞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이 있으시다면 상정 해주시길 바란다. 장학제도 개정관련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 전달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지도위원회 그리고 홍보물 내규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단위요구안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

예술.정: 혹시 단위요구안 저번처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없는지?

총: 그거를 이번 주 금요일에 수합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예술.정: 감사하다.

통공.정: 궁금한 것인데 중감위원 사퇴공고 같은 건 따로 나간 건 없는지?

총: 중감위 SNS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

통공.정: 알겠다.

총: 네 모두 올라갔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중운위 30차 회의 폐회하도록하겠다. 고생 많으셨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